

내란 극복·한강 노벨상 수상 계기…5·18 세계화 지금이 적기



5·18, 국경 너머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은 현재 5·18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5·18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5·18을 다룬 책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는 등 어느 때보다 5·18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5·18 세계화의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안팎에서는 5·18기념재단(재단)을 중심으로 5·18의 세계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져 왔다.

재단이 국제 연대활동 일환으로 매년 5·18 정신

참배 외국인 등 매년 증가세
5·18기념재단 '광주인권상'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
외국인도 자국서 전파 노력
'세계화' 개념은 재점검해야

과 맥을 같이 하며 인권 증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을 선정해 '광주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재단은 2025년도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인도네시아 인권단체 '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AJAR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했던 24년간 납치된 아이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등 활동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도 5·18 국제화 흐름에 발맞춰 오는 15일

부터 3일간 유네스코 등과 협력해 '세계인권도시포

럼'을 진행키로 했다. 시비 5억 5000만원을 투입해 전세계의 600여명 인권·평화 활동가와 학자 등과 함께 국제인권연수 특강 등 7개 분야 총 27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강 작가, 12·3 비상 계엄 등을 계기 삼아 해외로 5·18 정신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도쿄에서 활동 중인 그雷픽디자이너 '탈'은 지난 달 12일 발간된 '이토록 평범한 내가 광장의 빛을 만들 때까지' 책 저자로 참여하며 12·3 계엄을 통해 떠올린 5월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을 풀어놨다.

탈은 일본 각지에서 열린 '도쿄 운설텔 퇴진 집회'에서 부총괄을 맡았으며 12월 6일 신오쿠보에 열린 집회에 일본인 등 30여 명과 참가했다. 이와 12월 7일 우에노 공원, 12월 14일 신주쿠 일대, 같은 날 도쿄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목소리를 냈다.

5·18을 배우고 싶어 광주를 찾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외국인 수는 2022년 2140명→2023년 3559명→2024년 5047명으로 증가세다. 올해도 4월까지 민주묘지에 방문한 외국인

은 총 958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708명) 대비 35%나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12·3 계엄 등으로 인해 전 세계인들이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광주 5·18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덴마크, 체코, 뮌헨 등 세계 각국 재외동포 1만여 명은 '제외동포 시국선언문'을 내고 "5·18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너무나 강력하다"며 12·3 계엄과 5·18의 연관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반면 5·18과 국제 사회를 연결하는 '국제연대활동' 중에서는 지역사회와의 무관심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사례도 적지 않다.

2016년부터 광주시, 5·18기념재단, 5·18연구소 등이 추진해온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젝트(GNMP)'는 지난 2023년 광주시의회로부터 '실현성' 지적을 들은 뒤 기념재단의 사업 포기로 이어졌다.

재단이 해외에서 추진했던 '5·18 국제사진전'은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9년 독일, 인도

네시아, 2020년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열리다 올해 2월에는 대만 2·28 교류회와 함께 국내 사진전을 여는 데 그쳤다.

지난해 '한조페더 국제보도상'도 일반회계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하면서 사라질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5·18 학자들 사이에서는 현 시점에서 세계화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 역사적 사실 전파부터 국제 교류, 문화 전파 등을 통한 세계화의 '세계화'라고 해석하다 보니 일치된 방향성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희승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5·18 세계화에 대한 성과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5·18 45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세계화'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세계화'에 대한 상을 동일하게 그려왔는지 돌아봐야 지역사회와의 추진력이 한 데 모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끝〉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어버이날 꽃단장 8일 광주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에서 어르신들이 얼굴 화장 서비스를 받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전남 17개 시·군에 범죄예방 CCTV·가로등 설치

광양·영암·완도 등

전남 17개 시·군에 지능형 CCTV와 가로등 등 범죄예방시설이 설치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8일 '2025년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사업' 대상지 공모를 거

쳐 광양·영암·완도 등 17개 시·군을 선정했다.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공모사업은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스마트풀, 지능형 CCTV, 가로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66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올해는 17억 50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각각 40%와 60%를 부담한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응모한 17개 시·군 모두 대상지로 결정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CCTV, 비상벨, 스마트풀 등 치안 인프라를 더욱 확대, 지역민이 안심하는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시민 현혈 인파 몰린 '옛 적십자병원'

5·18 45주년, 여기는 꼭!

한강 '소년이 온다' 속 배경

뜨거운 광주 정신의 상징

이달 말까지 건물 일부 개방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배경인 '옛 적십자병원' (5·18 사적지 11호·사진)도 5·18 기간 꼭 둘러봐야 할 장소로 꼽힌다.

광주시 동구 천변우로 415번지에 있는 옛 적십자병원은 오는 3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된다.

이 곳은 5·18민중항쟁 당시 부상당했던 시민과 시민을 치료하고 돌봤던 곳이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이 부상자를 돌보면서 헌신과 사랑, 민주 인권과 평화의 정신을 몸소 실현한 공간이다.

시민군 환자가 쏟아지면서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뿐 아니라 인근 유흥업소 종업원까지 현혈에 참여하는 등, 옛 적십자병원은 뜨거운 광주 시민정신의 상징과 같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1974년 광주적십자병원 부설 혈액원으로 처음 시작됐다. 5·18 당시 적십자 소식지에는 광주적십자병원에서 "5월 21일과 22일 광주시민들의 참여로 411병을 채혈, 부상자를 치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한국사회의 보호법
전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 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증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National Financial Service



h-well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손해보험협회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IGRAA 보험GA협회
Insurance GA Association of Korea